

연차수당

잘 빨고  
있나요?



# 클릭하면 커집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2017. 4. 4 호



방학중 비근무자  
급식실 연차는 10개 인가요?

## 최소 12일이 맞습니다!

우리노조에서 진행한 소송결과에 따르면, 법원은 "근무한 양에 비례해서 연차를 부여해도 된다"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소정근무일: 상시전일 근무자는 **약 245일**이지만  
방학 중 비근무자는 방학중 근무일수 제외해서 **약190일**

$$15\text{일} \times (190\text{일} \div 245\text{일}) = 11.6\text{일}$$

통상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니 **12일**이 되어야 합니다.

### 〈지역별 방학 중 비근무자 연차 일수〉

12일 또는 12.5일	11.5일 또는 12일 ※근무일수 비례	11일	10일
경남,부산 울산,충남,광주	경북,인천	강원,서울,전남	경기,대구,대전 전북,제주,충북

세종은 방학 중 비근무자의 대부분이 15일을 적용받습니다. 근로 기준법에 따르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연차를 부여하는데, 방학 중 근무일까지 포함할 경우 상시전일 근무자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 소수점 이하 반차발생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부여방식은?

학교에서는 방중비근무자나 단시간근무자의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할 때, 0.5미만은 아예 연차를 안주는 경우가 있는데 학교에는 보통 반차규정(0.5일)이 있으므로 소수점이하 첫 번째 자리 1~4인경우는 0.5일로 반차를 주고, 6~9인 경우에는 1일 연차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연차휴가일수 계산했을때〉

소수점 첫 번째 자리가  
**1~4인 경우**

11.1, 11.2, 11.3, 11.4 일경우

**11.5일이 발생**

소수점 첫 번째 자리가  
**6~9인 경우**

11.6, 11.7, 11.8, 11.9 일경우

**12일이 발생**



시험일, 소풍 학교행사 등  
**연차를 무조건 사용하래요**

## 합의가 없으면 위법!!

사용자는 특정한 근무일에 노동자들을 쉬게 하려면, 반드시 노동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위법입니다. 물론, 노동자의 과반수가 가입된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과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2조)

연차는 노동자가 원하는 시기에 쓸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데, 학교에서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재량휴업일 또는 개교기념일에 연차 사용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날은 단체협약을 통해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일요일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19대 대선 방침

- 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를 지지한다.**
- ② 김선동 후보 선거운동중심으로 비정규직 철폐, 사드 배치 반대 등 민주노총 현안투쟁을 함께 실천한다**
- ③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강화하고 더 크고 새로운 진보 정당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한다.**



# 김선동이 얻은 표만큼 정규직쟁취가 앞당겨진다!

## 정권교체를 넘어 세상교체가 필요하다

촛불의 힘으로 정권교체는 이미 기정사실화 되었다. 그러나 정권교체가 된다고 저절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되지는 않는다. 과거 민주당 정권 10년 비정규직이 만들어지고 확대되었다. 단순히 정권을 바꾸는 것을 넘어 세상을 바꿔야 한다.

## 소금이 없으면 바다가 썩듯이 진보정치가 없으면 기성정치는 썩는다

보수야당에게 정권교체에 필요한 표 이상 더 주어봐야 기고만장해질 뿐이다. 진보정치 민중후보 김선동후보가 많은 표를 득표할 수록 권력은 진보적인 국민을 두려워하고 민중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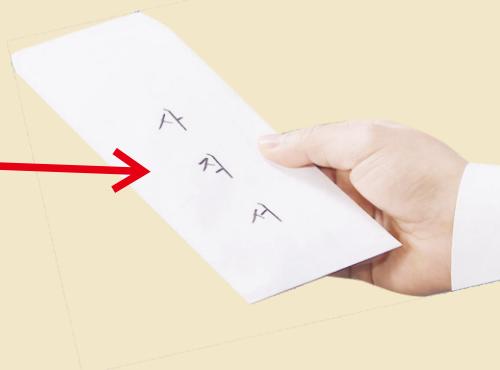
## 진보정치가 살아나야 우리의 삶이 바뀐다

진보정당이 해산되면서 우리사회 노동자 민중을 위한 정부정책은 거의 실종되었다. 진보정치의 운명과 노동자 민중의 운명은 함께할 수밖에 없다. 학교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법을 최초로 발의한 전 국회의원 김선동후보가 득표하는 만큼, 진보정당이 살아나는 만큼 정규직의 길도 가까워진다.



문제 있는 보수야당에  
표주면 **남는표** 되고

철이 안든 보수야당에  
표주면 **사표** 된다.



학교비정규직의 현명한 투표는

세상을 바꾸는 **표** 가 됩니다.



실망을 안겨준 민주당정권

10년

나라를 망친 새누리당정권

10년



비정규직 민주노총지지 후보

기호 10 김선동과 함께 세상을 바꾸자



사드반대 전쟁반대 평화협정체결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비정규직철폐 새로운 정규직제도 도입